

목회기고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 스승, 성년, 부부의 날 등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뜻깊은 날들입니다. 인간 사회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소중한 날 들, 이러한 뜻깊은 날 들은 서로가 함께 지켜내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때론 앞만 보고 빠르게 살다 보면 깜박 잊고 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날들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곳인가를 생각해 하는 성찰과 감사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또 5월은 교회 적으로 보면 ‘성령강림절’을 앞에 두고 교회, 개인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강림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 1:4-5)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의 길을 놓치고 내리막길을 가던 중, 코로나19를 통해 3년여 동안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하지만, 이제는 큰 위기를 지나서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심령 부흥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울림이 있고, 짙림이 있어서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심령이라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이 열매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행 2:37-39).

그렇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설교(말)는 잘하면서 내가 전하고, 한 말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자신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라!고만 외치는 행과리에 불과하지않는가? 깊이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공동체 부흥은 개인의 심령 부흥으로부터, 회개하고, 죄 사함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데로부터입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미움, 그리고 분열이 어디로 부터 오는가? 잘못된 목회자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 아닌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되지 않는가?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것 전하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경우 없는가?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가 아닌, 곧 나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특히 강단을 맡아 설거야 할 목회자가 성령강림절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 깊이 새김질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않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흑평하기를지옥 같다 하기도 합니다.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그리고 원목목사와 후임목사의 관계, 갈등과 미움 그리고 분열은 누구의 탓일까요? 모든 것이 ‘내 탓’이라 생각하면 좋을 텐데, 모두가 ‘네 탓’이라 하니 문제가 꼬

이고 꼬여서 불행한 내일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 분체의 책임은 모두가 담임목사의 무한 책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책임 역시 부모입니다. 가정과 교회 모두 누구 때문이 아닌, 무엇 때문이 아닌 모두가 내 탓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교회 부흥과 가정 평안의 디딤돌이 될지라도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하는 깊은 다짐을 하는 5월이었으면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모두가 과한 욕심에서 오는 것. 믿음의 가정들의 회복과 평안,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합니다. 성령강림절을 대망하면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은 행 2:43-47을 참고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한국 교회와 예성의 각 지체들의 평안과 함께 회복을 넘어 큰 부흥을 기대합니다.



조석근 목사
안강남부교회 원로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 개최

오는 17일 ‘성령과 함께, 지구촌 이웃과 함께’ 라는 주제로 열려

세계적인 신학자 존 웨슬리의 신앙을 계승한 6개의 교단이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세계웨슬리언국제대회를 개최한다.

세계웨슬리언국제대회는 존 웨슬리 탄생 323주년, 회심 285주년, 웨협(웨슬리언지도자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성령과 함께, 지구촌이웃과 함께’(행전 2장)라는 주제 아래 세미나와 주제 강의 그리고 찬스 웨슬리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다.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양기성 박사(사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한국교회가 회복으로 돌아가는



양기성 목사
대표회장

같은 오직 강력한 성령 운동인 웨슬리언 운동’이라며, “이번 대회가 교파를 뛰어넘어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연합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번 세미나는 웨슬리 신학의 권위자인 미국 달라스 남부감리교대학 테드 켈벨 교수가 주제강의를 전하며 김신대와 서울신대 등 5개 대학의 총장들이 컨퍼런스 발제자로 나선다. 또 수많은 찬송가를 탄생시킨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의 이름을 딴 음악회가 함께 진행된다.

한편, 지난 3월 31일 제14대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양기성 박사는 ‘존 웨슬리에 미친 사람’이라고 불린다.

양 박사는 “웨슬리는 영국 최고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가장 낮

은 곳에서 소외당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며 “최고의 지성인이면서 학자 부흥사 복지사업가 사회개혁운동가 조직행정가인 웨슬리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게 내 기쁨이며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웨슬리를 본보기 위해 웨슬리처럼 묵하는 물론이고 성령치유(용인푸른초장기도원장) 사회복지(용인하회의집 운영 이사) 후학양성(서울신대 겸임교수) 등의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다.

2006년에는 웨슬리 신학을 이어받은 교단들의 모임인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를 창립했다.

현재 기감 기성 여성 나성 구세군 기하성 등 6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본 협회는 매년 학술대회와 지도자 컨퍼런스를 통해 웨슬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



본 협의회 발기인이었던 그는 사무총장을 거친 후 유수의 웨슬리언 교단 총회장과 총장 신학자들의 뒤를 이어 대표회장까지 맡게 됐다.

(광고 8면 참조)

회전근개 파열

어깨통증의 원인은 다양한데 그중 에 혼한 것 몇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는 오십견이다.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 점차 두꺼워져 관절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한다.

둘째는 회전근개 파열이다. 어깨관절을 구성하는 4개의 힘줄 가운데 노화 중 쇼크나 외상으로 인해 찢어지거나 파열되어 발생한다.

셋째는 석회성 건염이다. 어깨관절의 순환장애로 혈액 공급이 떨어져 산소분압이 감소하고 건세포가 물렁빠세포로 변형되어 석회화가 침착되어 통증을 유발한다.

넷째는 근막통증이다. 근막통증증후군으로 근막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다섯째는 퇴행성 변화이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질환이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을 알아보자.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 부위가 넓어지고 회전근개 힘줄이 위축돼 치료가 힘들어질 때가 많아 조기 발견해 관리·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수술적 방법을 통한 봉합술을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파열 정도와 환자가 느끼는 증상 등을 고려해 치료 시기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Q. 예방하는 방법은 없다.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가 들수록 병률이 높아지는 퇴행성 질환이기에 확실한 예방법은 없다. 따라서 평소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은 삼가고, 운동 전에는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관절 운동 범위를 넓히고, 증상이 있을 때는 정형외과 전문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Q.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깨관절을 이루는 뼈 가운데 상완(上腕) 골두를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이 찢어진 것을 말한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극상근·극하근·견갑하근·소원근 등 4개의 힘줄로 이뤄져 있다.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힘줄인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 및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팔·어깨가 아프고 근력이 약해진다.

Q. 원인은 무엇인가.

격렬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 때문이다. 크게 다치지 않아도 중년이 넘으면 회전근개가 파열될 위험이 높아진다. 증상은 어깨 삼각근 부위 통증이 가장 흔하고,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느낄 수 있는 근력 약화 등도 나타난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상당히 진행돼도 증상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10~15%가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된다.

Q.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

Q. 어깨 통증 예방법

어깨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다양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되도록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일을 하면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운동하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후 본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갑자기 허리를 굽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통증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더 기다리지 말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좋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고 쉬었다가 일을 계속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조생구 원장
한사랑병원



제3회 선교사님 위로모임에 초청합니다

주제 : 우리 함께 가요(we go together)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오전 9시

장소 사랑비전교회(여희준 목사 시무)
인천 서구 원당대로 608번안길 3(당하동 955-11)

오전 순서(9시~12시) ♥ 영성의 시간

개회설교

노희석 목사
명일성결교회

말씀 1강

김경수 목사
성결한교회

말씀 2강

여희준 목사
사랑비전교회

세미나1

길원평 교수
한동대 석좌교수

세미나2

탁지원 소장
현대중교 대표

점 김 (12~14시)
♥ 나눔의 시간

※ 본 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교비(교통비)와 선물을 드립니다.

작은교회목회자 모임

L.C.M.F(Little Church Missionary Fellowship)